

김별아의 문학과 삶



즐거운 공부를 위하여

아들아이가 열흘간의 해외통합기행 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배낭 속에 싸은 빨래를 꾸깃꾸깃 짊어 넣고 상거지 꼴로 돌아왔지만, 표정만은 특급 호텔에서 호화스런 휴가를 보낸 것 못잖게 환하다.

아이가 다녀온 곳은 태국, 버마 국경 지역에 자리한 작은 도시 메솫이다. 메솫에는 정치적 이유로 탈출한 버마인들의 이주촌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을 맞은 아들이와 19명의 친구들은 그곳 시내의 민나허 학교와 UN이 운영하는 벨라우 난민촌 내의 영니우 학교 학생들과 세미나, 수업, 문화공연 등의 교류활동을 벌였다.

기실 현지 단체들은 한국의 단기해외봉사단이나 방문단이 오는 것을 썩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 시혜적, 의존적 관계로 봉사나 방문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들이가 다니는 학교는 2005년부터 필리핀의 ‘쓰레기 마을’, 네팸의 오지, 일본의 민족학교 등에서 해외통합기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고, 메솫의 난민촌도 그 중요한 활동지 중 하나였다. 매년 학년이 바뀌어 새로운 아이들이 참가하는 프로그램을 거부감이나 경계심 없이 허용하는 건, 그동안 쌓인 신뢰와 나날이 풍부해지고 성숙

해지는 내용 덕택이리라.

아이는 정작 현지에서 활동할 때보다 떠나기 전에 훨씬 바빴다. 도대체 무슨 할 일이 그리 많은가 했더니 메솫으로 떠나기 전 버마의 역사, 민주화운동, 인권 상황 등을 두루 공부한다고 했다. 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버마와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비교하고, 난민촌의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를 준비하고, 마을에 벽화를 그리고, 후원장터를 여는 일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영어로 진행되는 세미나를 진행할 공리예나 다 문화 공연에서 ‘메솫의 싸이’가 되어 출말춤을 연습하느라 아이는 눈코 뜰 새가 없었다.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나 어른들의 개입은 거의 없었고, 아이들이 자율적으로 형식을 만들고 내용을 채웠다.

그 모습을 지켜보노라니 흐뭇한 한편 놀란 기분이 들었다. 아이는 참으로 열심이었다. 방대한 역사와 딱딱한 기록들을 읽고 요약정리하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지루하거나 힘들다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 자식 자랑은 반편이지만, 내가 아이에 대해 자랑하고 싶은 한 가지는 이처럼 즐겁게 공부할 줄 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만 할 것은 그 ‘공부’가 대학입시의 주요과목인 ‘언수

위’가 아니며, 따라서 당연히 ‘성적’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이다. 아이가 다니는 대안학교는 교육청에서 인가를 받은 학교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고 성적도 나온다. 사교육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고 입학한 만큼 오로지 학교 수업에 의지하는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것만으로 세상에 섰는 ‘좋은 성적’을 내기는 힘겨운 형편이다.

하지만 일평생 본 적 없는 놀라운 (낮은) 점수가 찍힌 성적표에 깜짝깜짝 놀라면서도 내가 아이와 그의 친구들에게 감탄하는 것은 그들이 공부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다. 아이들은 성적이 나쁘다고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 때로 성적표 앞에서 충격과 공포에 빠진 엄마의 눈에 뻘뻘스럽게 보일 만큼 당당하다.

수학 시험을 못 봤지만 수학이 좋았다. 도저히 풀지 못할 것만 같았던 문제가 (틀린 후에라도) 차근차근 풀려나가는 걸 보면 신기하고 가슴이 뵈인다. 그 대목에서 나는 그에게 기쁘게 환복하고 말았다.

명문 대학에 입학한다고, 좋은 직업을 가진다고 공부가 끝나는 게 아니다. 더 이상 아무 것도 공부하기 싫다고 손사래 치는 사람들을 본다. 아무것도 흥미 없다는 듯 시큰둥한 표정으로 억지로 ‘스펙’을 쌓고 있는 대학

생들을 본다. 공부 자체에 흥미를 잃고 재미를 붙이지 못한 채 그저 시험과 성적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이들이 하고맴다. 하지만 인생 공부, 사람 공부, 세상을 탐구하는 공부는 평생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끝없이 공부하는 자세와 기쁘게 공부하는 태도다.

해외통합기행을 준비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즐거운 공부의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한다. 그 하나는 스스로 선택한 공부여야 한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목표를 공유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한다는 것이다.

고단한 일정이었지만 아이는 여느 여행과 달리 많은 것을 배운 모양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언젠가 자기 나라를 위해 일하고 싶다는 버마 친구들에게 감동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한 난민촌에서도 맑은 눈망울을 빛내는 아이들과 마음을 나누며, 교과서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진짜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한다.

그런 아이를 위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일은 하나뿐이다. 공부하라는 닦달과 엄친아를 들먹이는 채근 대신 입을 꼭 다물고 참을 인(忍)자 세 개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다. 오직 제 힘으로 일구는 즐거운 공부에 가장 큰 적은 ‘공부하라!’는 명령조의 잔소리일 테니. <소설가>

종교칼럼

희망을 가진 사람



김재영 광주성안교회 담임목사

따르면 성인의 15.6%는 평생에 한 번 이상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보았다고 한다. 최근 1년간 자살시도를 한 사람도 무려 10만 8000명에 이른다.

자살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우울증은 이 조사에서 2001년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했다. 통계청 사망 원인에 따르면 자살자는 2001년 6911명에서 2011년 1만5906명으로 10년간 세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양의 오래된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왜 사는지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다.”

프랑클(V.Frankl)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같은 수감자이면서도 자살하려는 동료들을 위해 카운슬링을 시도하게 된다.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수감자 중에 두 사람이 자살을 하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녔다고 한다. 이 두 사람 모두 대다수의 자살을 결심한 사람이 주로 하는 말인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다. 것이다.

프랑클은 두 사람에게 “삶이 당신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느냐. 그리고 당신들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지 않느냐”고 설득했다.

알고 보니 한 사람은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한 사람은 학자로서 책을 몇 권 썼는데, 아직 완전히 매듭을 짓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깨닫고, 그 비참한 수용소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자신이 마쳐야 할 저술에 책임감을 느끼고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존재의 의미를 알면 어떤 시련도 감내할 수 있는 것이다.

프랑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 것을 보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는 살아남거나 죽는 것이 신체와 건강과 직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앞으로 뭐가 의미 있는 일이 있다고 믿고 희망하는 사람은 살아남고, 절망적인 사람은 죽었던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독특한 유일성이 있다.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나, 꼭 해야 할

‘소명’에 적용이 된다. 그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람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강한 책임감을 느껴며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이다.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사는 화가 지망생 존시는 폐렴에 걸려 나날이 병세가 악화해 가지만 삶을 포기할 채 창 밖 담쟁이의 잎만 세며 마지막 일새가 떨어질 때 자신도 함께 죽게 될 거라고 말한다. 밤새도록 세찬 비와 사나운 바람이 불던 다음날 아침에도 벽돌 담벽에 담쟁이 잎새 하나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것은 아래층에 사는 화가 배어만 노인이 존시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그린 것이었다. 이틀째 마지막 일새가 여전히 붙어 있자 존시는 생명을 포기하려던 마음을 고쳐먹고 살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이다. 이 소설은 오늘날 희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시대적 사명이자 책임으로 들린다.

우리 모두는 살아갈 가치가 반드시 있는 존재이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社說

나로호 발사 성공 ‘우주강국’ 이제 시작이다

한국의 첫 우주 발사체인 나로호가 지난달 30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궤도에 진입에 성공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우주로켓 발사에 성공한 11번째 국가가 됐다. 두 차례 발사 실패 등 숏한 우여곡절 끝에 2002년 나로호 사업이 시작된 지 11년 만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 제친 것이다.

이번 성공으로 우리나라의 국력과 국가 브랜드는 한층 높아졌다. 경제적 효과 또한 엄청나다. 약 3000억 달러로 추산되는 우주개발시장 규모는 물론이거니와 1조3590억 원의 수출 증가효과를 포함해 직·간접적으로 최대 3조 원의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우리는 나로호 성공의 감흥에만 도취돼 있을 수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우주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에 눈을 돌려야 한다.

나로호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상당 고체로켓과 발사장 기술, 발사체 운영 노하우 등을 습득했지만 가장 중요한 1단 액체로켓 기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1단 추진체가 러시아 수입품이라는 점에서 ‘반쪽 짜리’ 성공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향

후 발사체의 핵심인 로켓의 자체 개발과 기술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부는 나로호 후속 사업으로 순수 국내 기술로 한국형 발사체를 개발해 2021년 1.5t급 실용위성을 지구궤도에 올려놓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직 1단 로켓 기술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다. 더욱이 우리 우주개발예산은 한 해 200억~3000억 원으로 3조 원이 넘는 일본의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런 상태로 우주개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들다.

우주개발에는 막대한 예산과 엄청난 과정이 상존해 있다. 따라서 수십 년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기술을 축적해온 선진국들을 따라잡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우주개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주강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출발점에 서 있다. 지금처럼 과거의 한 관에서 우주정책을 전담하는 체제에서 벗어나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전담기구를 두는 등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우주강국 꿈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시멘트 값 인상, 건설사업 차질 우려 된다

시멘트 업체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멘트 가격을 10% 가량 인상하기로 해 레미콘 업계 및 지역 건설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지난해 2월 레미콘업체들이 시멘트 값 인상에 항의하며 파업에 돌입해 이번엔 재파업도 우려된다.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동양시멘트가 다음달 7일부터 순차적으로 t당 6000~7000원씩 시멘트 가격을 올리기로 하면서 타 시멘트 업체들도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지난해 9%에 이어 올해도 10%가 또다시 인상될 현재 t당 7만3600원에서 t당 8만 원대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당장 발 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레미콘업체와 건설업체들이다. 시멘트 값을 10% 올리면 레미콘 값도 그만큼 인상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골재 품귀에도, 인상 전 계약이 체결된 건설사업에 대해서 가격을 올릴 수 없어 레미콘 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

건설업계와 광주·전남지역 주요 건설현장의 타격도 우려된다. 원자재 값 인상으로 광주·대천 선수촌, 나주혁신도시 건설, 무등경관장 재개발 등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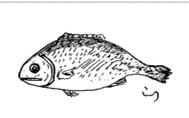
따라서 시멘트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 불과 1년 만에 20% 가까이 가격을 올린다는 건 횡포나 다를 바 없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시멘트 값 인상과 담합 등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참조기와 부세는 동족(同族)이다. 농어목 민어과로 물 다 지느러미와 배 부위가 황금빛을 띠고 있어 구분이 쉽지 않다. 물속에서 민어처럼 꺾꺾 소리를 내고 돌아다니는 점도 같다. 영어로 ‘croaker’는 ‘꺾꺾거린다’는 의미로 참조기는 ‘Redlip croaker’, 부세는 ‘Yellow croaker’라고 한다. 민어과 어류의 특징

도 이런 대접의 차이에서 비롯됐다. 여름철 남도음식의 대명사가 된 굴비정식도 참조기와 부세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요즘은 부세를 굴비정식으로 내놓는 식당들이 많다보니 참조기를 사용할 경우 참조기 굴비정식이라고 표시해놓고 가격을 더 받는 곳도 있다.

황금 ‘부세’



하지만 중국에 가면 대접이 달라진다. 중화권 사람들은 살이 부드러운 부세를 더 높게 쳐준다. 부세의 황금빛이 금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의 눈길까지 사로잡고 있다. 부자들은 고급호텔에서 금기부를 뿌린 부세를 먹고, 서민들은 부세를 튀겨 소스를 끼얹은 일명 탕수조개인 당초황어(糖醋黃魚)를 즐긴다.

중국인들이 한국산 부세를 마리당 50만원이 넘는 가격에 사들여 화제다. 며칠전에는 10마리 들이 제주산 부세 1상자가 519만원에 팔렸다. 내 눈에는 가치가 없어도 남의 눈에는 금같은 존재가 우리 주변에는 꽤나 있는 것 같다. /장필수 사회2팀장 bungy@kwangju.co.kr

기고

광주 역사도시 조성 의미와 과제



김형주 광주김치박물관 학예사

는 생활환경의 수준향상이라는 육구의 총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발이 요구되는 반면 선조들의 문화적 자취의 원형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존 필요성이 절실한 것도 사실이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의 것은 무조건 낡은 것, 보존가치가 없는 것으로 치부하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프라하’, ‘부다페스트’ 등 서구의 유명도시들은 100년, 200년 전의 시가지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여 유구한 역사성을 훌륭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100년은커녕 30여년 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른바 ‘개발연대’ 기간 동안 도시의 개발이라는 사업 그 자체에만 집착한 나머지 문화자원의 역사적 연속성을 도외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는 다분히 서구식 생활방식을 선망하고 교유의 전통적인 가치를 낡고 하찮게 여기는 사고방식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제 우리도 도시의 개발을 실시할 때 일지구역의 잔존물을 모조리 제거하여 새로운 시가지지를 조성하는 전면적인 개발방식보다는,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물은 보존하고 유지하는 선별적인 개발정책이 요구된다. 오래된 도로와 건물을 철거하여 과거와 단절된 도시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고색창연한 세월의 연륜을 간직한 도시거리의 모습을 유지함으로써 역사문화 자원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지금 근대도시 광주 100년 역사의 짙을 키워낸 양림동 일대에 역사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가 역사문화도시로 발전하려면 고대부터 중세와 근대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양림동 역사마을 조성은 광주역사도시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사실 양림동에는 수괴파여중 원소보려를, 배유지기념관, 오헌기념관 윌슨 선교사 사택, 제중원 등 서양식 건물이 즐비했는데, 선교사들이 초기에 정착하여 학교,

교회, 병원 등을 건립하여 광주의 근대화를 선도하였다. 이와 함께 여기에는 이장우 가옥, 최승호 가옥 등의 전통문화재도 잘 보존되어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레 공존한다. 또한 음악가 정음성이 유년시절을 보냈으며, 다형 김현수 시인이 기거하였던 문화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예술가의 요람이기도 하였다. 철저한 고증과 자문으로 광주 근대역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체계적인 복원을 주문하면서, 이를 계기로 고대 중세 역사작부터 현대사 5·18사적지를 이루르는 거대한 청사진을 기대한다.

광주가 유구한 역사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주요 문화유적지를 완벽하게 정비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교육탐방지로 육성하고, ‘양림동 역사마을 기행’, ‘5·18사적지 도보 순례’ 등의 탐방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한다. 광주역사를 몸소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최근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왜곡된 5·18 역사인식에 적극 대응하고 진정한 광주정신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으로 육성하자.

농어촌 청소년 위해 찾아가는 성교육 필요하다

우리 전남·북 각 시군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좀 배울 일인 듯 해서 적는다. 농촌의 어린이들은 교육, 의료, 상담 등 모든 면에서 도시 아이들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란다. 특히 아이들의 성(性)에 관해서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얼마 전 뉴스를 보니 경기도에서는 국내 최초로 찾아가는 청소년 성교육 버스를 도입해 경기도 내 농산어촌에 다니며 운영하는 데 내용은였다. 이 서비스는 ‘와~소행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아이들의 성은 우주와

같이 준귀하고 신비한 것이라는 뜻에서 소행성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다. ‘와~소행성’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터치스크린 자료와 선생아 모형 등 다양한 교구와 시청각 자료를 갖춘 이동버스 체형관이다. 전문 강사와 함께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한다고 한다. 우리도 이렇게 찾아가는 청소년 성문화

교육을 해준다면 성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농산어촌 지역 청소년도 성범죄 예방과 건전한 성문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야만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는 우리 농촌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성의 소중함과 고결함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다. ▲유민규·목포시 수감동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洛樂 편집국장 奇賢鎔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재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산부 2200-685	문화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